

# 구미에 맞추기보다는 구미를 깨는 게 낫다

작가의 관점에서 본 한국문학의 현실과 과제

글\_김종광 (소설가)

한국문학은 대체적으로 불황 상태다. 대중문학은 판매량으로밖에 그 가치를 주장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데, 2006년의 베스트셀러 집계를 죽 살펴볼 때 우리가 대중문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그래서 출판시장의 논리대로라면 최고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은 더러 있었지만 말이다. 애초부터 대여점에서 유통된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난 대여점문학은 한 때 판타지, 신무협, SF, 학원연애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황이었으나, 현재는 침체 일로다. 그 유력한 증거는 대여점 숫자의 한없는 감소일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문학만큼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 과연 독자들이 읽는 것보다 쓰는 걸 더 좋아한다고 말이 돌 만큼, 수많은 이들이 써낸, 장르를 딱히 가릴 수도 없는 각종 문학(낙서를 포함해서)이 사이버를 달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문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 대중문학, 대여점문학, 인터넷문학은 논의의 대상이다. 즉 한국문학은 본격문학만을 일컫는 이기적인 개념인 것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한국문학의 위기, 혹은 현실과 과제 등에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 본격문학 진영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출판저널>이 내게 의뢰한 내용은 '작가의 관점에서 본 한국문학의 현실과 과제' 인데, 여기에서의 한국문학도 의심할 바 없이 본격문학만을 의미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잘못 이해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국문학이라 하지 않고, 굳이 본격문학이라고 협의해서 말하려고 한다.

본격문학을 풀어서 말하면, 문학의 근본에 맞는 격식이나

규격을 갖춘 문학이 되겠는데, 이 본격문학의 인프라를 살펴보면, 생산자인 작가, 작가 단체, 400여 종의 문예지와 그 문예지를 펴내는 출판사와 문학 단체나 모임, 출판사들이 펴내는 문예지 이외의 책, 이 책들에 대해 언론활동이 가능한 기자군, 평론가, 그 문예지와 책을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문예창작과나 국문과생, 그 학과들의 교수군, 생산자가 되려는 꿈을 가진 습작자들, 소수의 마니아 독자들 정도일 것이다.

빈약한 인프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격문학이야말로 미증유의 불황 중인 것이다. 해마다 한국문학의 사망을 염불 외우듯 할 정도로. 출판시장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바 없이 타당한 진단일 것이다. 책이 팔리지 않으니까. 출판시장이 한국문학을 평가하는 잣대는 오로지 판매량에 있는 것이다. 출판시장이 '요즘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요즘 사람들은 책을 안 산다는 말이다. 출판시장에게 그 책을 도서관에서 읽은 독자들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사실 책을 사서 읽는 독자보다 도서관에서 읽는 독자들이 훨씬 많다. 그게 바로 도서관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관계 언론이 나서서 기적의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전 국민이 지지한 이유이기도 하고,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 돈으로 '문학나눔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팔리느냐와 얼마나 읽히느냐는 명백히 다른 문제이다. 때문에 잣대를 판매량으로 하느냐, 독서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달리 파악하게 되고 과제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출판시장의 그간 한국문학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분히 판매량에 근거하고 있다. 판매량이 저조하므로 한국문학은 위

## 김종광(金鍾光)은

1971년 충남 보령에서 출생했다. 1997년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하고, 1998년 계간 <문학동네> 신인상에 단편 <경찰서여, 안녕>당선으로 데뷔했다. 200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해로가>가 당선됐다. 대산창작기금(2000)과 신동엽창작상(2001)을 수여했다. 소설집 <경찰서여, 안녕>(모내기 블루스)(짚뿡과 소주의 힘)(낙서문학사), 장편소설 <7년생 다인이>(아살쟁이)를 썼다.

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문학의 과제는 분명하다. 좀더 팔릴 수 있는 본격문학을 생산할 것. 이것은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시장의 당연한 욕구이며 지당한 방향이다. 요새 문제가 된다고 해야 할지, 양지로 끌어올려 개념화 중이라고 해야 할지, 한참 말 되고 있는 기획출판은 소비자의 기호에 영합하겠다는 확실한 의지 표현의 산물로서 앞으로 가속화될 게 확실하다. 기획출판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되던 본격문학도 이러한 기획출판의 위협을 거세게 받을 것이다. 어쩌면 작가들이 저도 모르게 스스로 기획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갯대를 독서량에 둔다면 과제는 달리 나온다. 본격문학을 좀더 읽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된다. 어쩌면 본격문학의 미증유의 불황은, 그간 수십 년간 독서교육을 방기해온 당연한 대가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로또 사서 마련해준 돈으로 펼쳐고 있는 문학나눔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사업은 본격문학을 좀더 읽히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했다. 과오는 시정되어야겠지만, 국민 혈세가 이토록 보람차게 쓰인 예는 드물 것이다.

유력 출판시장은 최근 소위 1318세대를 예상소비자로 설정하고 청소년의 기호에 맞는 작품을 생산해내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장 책을 읽지 않는 나이대가, 논술교육바람에 힘입어 출판시장의 눈에 처녀림의 위치로 격상된 것이다. 하지만 출판시장은 불가피하게 제반 작업의 제1갯대로 판매량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출판시장인들보다, 영리에서 좀 자유로운 문학관

계자들은 독서량(독서력)이라는 갯대를 들이대야 한다. 갑자기 1318문학이라는 장르 문학 생산하는 것보다, 논술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아닌 말로 1318세대가 읽을 책이 없어서 안 읽은 건 아니잖은가? 어떤 책이 좋은지 판별하지 못하고, 읽는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잖은가? 논술교육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본격문학 소비자-사서 읽는 사람 빌려서 읽는 사람 모두 포함해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은 명백하다.

한국문학의 위기에도 불구하고(안 팔려서든, 안 읽혀서든), 존립속성상 다른 방법이 없는 출판시장은 놔두더라도, 문학관계자들은, 1318세대를 비롯한 미래의 세대들이, 좀더 많이 읽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에 맞게 노력하는 것이, 한국문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좀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독자의 구미에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독자의 구미를 깨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거다. ■■